

개소 10주년 기념 방재기술세미나 개최



연구소에서는 개소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7일 연구소 강당에서 소방 및 건축설계 사무소 실무자, 소화설비제조 및 시공업체 실무자, 안전관련 학생 및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신기술 및 적용'에 대한 방재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술기준(내무부고시 제1995-45호) 제정 등 새로운 선진 방재기술의 도입에 즈음하여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신기술과 그 적용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발표되어 관련 업계 실무자에게 최신 방재기술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발표내용 및 발표자는 '미국에서의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발달과정 및 최근 동향'의 제목으로 남순일(미국 FMRC 선임연구원) 공학박사가 발표하였으며, '최신 스프링클러의 특성과 적용'은 연구소 방재연구실 권오승 실장이, '소화설비와 화재보험 요율 할인 제도'는 협회 기획조사부 김광희 부장이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세미나 참석자는 주제발표 종료후 연구소내 스프링클러 관련 시험 및 시설 견학도 하였다.

미국선급협회의 시험기관으로 지정

연구소는 지난 3월 28일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IMO Res.A754(18) 기준 화재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소는 동업무에 대하여 로이드선급협회, 일본해사협회로부터 이미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노르웨이선급(DNV), 프랑스선급(BV), 독일선급(GL)의 지정도 추진중에 있다.

IMO 시험기관으로 등재

연구소가 IMO(국제해사기구)의 Information에 IMO기준 화재시험기관으로 등재되었다. IMO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구비한 각 나라의 유수 화재시험기관이 등재되는 IMO Information에 연구소가 등재됨으로써 연구소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다.

국내에서 IMO Information에 등재된 시험기관은 연구소가 유일한 기관이다.

생활관(교육생숙소)준공



연구소는 지난 12월 7일 정왕선 이사장과 조규만 소장, 정대춘 상무이사, 고성호 노조위원장, 그리고 연구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생활관의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6개월여만에 완공되어 앞으로 대내외 교육생 숙소로 사용될 생활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044m² 건물로서 2인용 방 12개, 3인용 방 3개, 4인용 방 4개를 구비하여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다.

생활관의 준공은 그동안 숙소 미비로 인한 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현재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일본건재시험센터와 제5차 정기협의회 개최



연구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일본건재시험센터와 제5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991년도에 체결된 상호 기술협정에 따라 매년 장소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정기협의회는 상호 공동분야의 기술교류, 비교시험 실시 등으로 양 기관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는 일본건재시험센터의 중앙시험소에서 열렸으며, 협의 주제인 구획관통부 공법(케이블 관통)의 내화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보·바닥·기둥의 재하가열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Deck plate 및 강재기둥의 내화성능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명수 부장, 조중달 차장, 정광웅 과장이 동 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선급관련 시험기관지정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일본해사협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방화문 및 차음구조에 대한 국가대행시험기관으로 지정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5일,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차음구조 및 방화문시험에 대한 국가대행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미 건축구조부재에 대한 내화성능시험기관, 건축재료에 대한 방화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대행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는 이번에 방화문 및 차음구조사시험에 대해서도 국가지정을 받음에 따라 명실공히 건축방내화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의 전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해운항만청으로부터도 지난 10월 24일, 수동펌프, 고압가스의 용기밸브, 포소화기(기계포), 포소화약제(기계포)의 4개 추가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써 연구소가 국립건설시험소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지정받은 품목은 각각 14품목, 24품목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전문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지정

연구소가 지난해 9월 28일자로 공업진흥청(KOLAS)으로부터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전문시험검사기관과 국내 또는 국내·외 제품간의 품질수준을 평가하는 품질경쟁력 평가기관, 그리고 공장품질 경영등급제 운영요령에 따른 등급공장 제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공산품소비자 보호운영요령(공진청 95-146)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전문시험검사기관과 품질경쟁력 평가기관은 공인시험검사기관(KOLAS), 국립공업 기술원 또는 지방공업기술원 중에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평가의뢰한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공업진흥청장이 관할하는 공산품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 화재·소방학회 초청간담회 개최



연구소는 조규만 소장의 주재로 지난해 11월 10일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및 회원 28명을 연구소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양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국내방재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방재관련 연구용역 등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한국화재·소방학회에서는 연구소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연구소에 정수기를 기증하였다.

음차폐 방법에 대한 특허신청

연구소는 이동식 시험체틀(카트리지방식) 및 공기

튜브를 이용한 음차폐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고자 지난 12월 22일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음차폐 방법은 연구소가 1994년에 개발하여 차음시설에 도입한 바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음차폐 시험체는 시험실내에서 제작·설치하는 것에 비해, 이 방법은 이동식 시험체틀(카트리지방식)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험체를 설치·해체하므로 시험소요 인원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이다.

연구소가 이 음차폐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면 차음설비시설 연구기관에 관련 기술을 공여, 시험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과 주유소간의 화재안전거리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연구소는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사단법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로부터 공동주택과 주유소간의 화재안전거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탁·실시하였다.

이번의 연구는 주유소의 화재위험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자료의 조사연구를 통해 대면 건물의 화재안전거리를 산출함으로써 공동주택과 주유소간의 적합한 이격거리를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며, 전국 주유소 현황조사, 주유소 화재위험성 조사, 주유소 화재의 통계 분석, 공동주택과 주유소간의 화재안전 거리에 대한 국내외 관련기준 자료조사, 관련 법규 개선대안 제시 등의 내용으로 과제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은 연구소의 류은열 부장이 맡았으며, 연구소의 이성도 차장, 이덕준 차장, 박찬선 차장, 이두형 과장, 위험관리정보센터의 채수주 차장, 김원철 과장이 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재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 을 위한 전문가 평가실시

연구소는 지난 12월초, 과학기술처 산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로부터 '96 방재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를 의뢰받아 대형산업시설물(가스, 유류) 안전진단기술 개발분야의 총 14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처가 자연재해 및 인재의 사전예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재난·재해 대응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96 신규 국책사업으로 '방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으로부터 제출된 방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선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평가는 류은열 부장, 권오승 차장, 이병백 차장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경구 부장 유럽3개국 출장

이경구 부장(방화구조부)이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건설교통부산하 건설센터(국립건설시험소)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시험장비 자료조사를 위해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은 감리업체인 (주)천일건축 앤지니어링이 이경구 부장으로부터 방내화시험장치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부장은 올해 3월부터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출강하여 건물 화재안전공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강의기간은 1996년도 1학기 동안이다.

류은열 부장 (사)대한전기 협회 전문위원으로 위촉

류은열 부장(개발운영실)이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화재예방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대한전기협회는 한국전력공사 주관하에 한국전력기술(주)의 기술용역을 통하여 품질보증·기계·전기·토목구조·화재예방 분야 등 총 66종의 전력기술기준을 개발하여 정식으로 발간하였으며, 이 기술기준의 지속적인 보완과 핵연료 등의 새로운 분야의 기술기준 개발을 위한 기술기준 초안검토, 확정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며, 그 일원으로 류은열 부장을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류은열 부장은 임기 2년 동안 기술기준 초안검토 및 확정,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다루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방재기술 실무교육 계획마련

연구소는 최근 '96회계년도 방재기술 실무교육 계획을 마련, 수행에 들어갔다.

4월부터 실시되는 방재기술 실무교육은 모집 및 수탁교육으로 나눠 실시되며 일반과 전문과정으로 진행된다.

일반과정은 위험관리실무, 방재관련 법규해설, 화재사례소개, 화재현장조사 등이며 전문과정은 소방시설설계 및 시공실무, 건축방재, 선진방재설비 소개 등을 교육하게 된다.

연구소는 올해 모집교육 10회, 수탁교육 16회, 기타교육 8회 등 총 34회에 걸쳐 1천여명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회)